



8강 이끈 지소연 있기에...
세계최강 美 두렵잖다

U-20 女월드컵 내일 새벽 조별리그 3차전... 2년전 패배 설욕 버려

한국여자축구 사상 처음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8강 진출을 이룬 '태극낭자'들이

기세를 몰아 세계 최강 미국에 '유쾌한 설욕'을 베풀고 있다.

최인철 감독이 이끄는 한국 20세 이하 여자 대표팀은 22일 오전 1시(이하 한국시간) 독일 빌레펠트에서 미국과 2010 FIFA U-20 여자 월드컵 조별리그 D조 3차전을 벌인다.

한국은 이미 스위스와 가나를 잇달아 제압해 이번 미국과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각 조 1, 2위까지 싸우는 8강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지었다.

가나와 첫 경기에서 1-1로 비기고 나서 스위스를 5-0으로 대파한 미국이 한국에 이어 조 2위다. 3위 가나(1무1패)가 최약체 스위스와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했다면 미국과

골득실 차가 많이 나 결국 D조에서는 한국과 함께 미국이 8강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한국-미국의 맞대결이 사실상 D조의 1, 2위 결정전인 셈이다.

여자축구 세계 최강인 미국은 2002년 시작해 올해로 5회째를 맞은 FIFA U-20 여자 월드컵에서도 최다 우승국이다. 2002년 캐나다 대회에서 초대 챔피언에 올랐고, 2008년 칠레 대회에서는 결승에서 북한을 꺾고 두 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이번 대표팀 멤버들에게 미국과 맞대결은 특히 더 남다른 의미가 있다.

한국 여자축구가 처음으로 FIFA 주관대회에서 8강에 오른 2008년 뉴질랜드 17세 이하 월드컵 때문이다.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2승1패의 성적을 내 8강에 올랐지만 미국에 2-4로 지는 바람에 더는 나아가지 못했다. 당시 한국과 미국 대표로 뛴 선수들이 현재 20세 이하 대표팀에도 대거 포함돼 있다.

한국에는 5골을 넣어 득점 선수를 달리는

공격수 지소연을 비롯해 미드필더 이현영, 박희영, 이민아, 전은하, 이영주, 수비수 서현숙, 송아리, 고경연, 이은경 등이 2년 전 미국의 벽에 막혀 눈물을 흘렸던 선수들이다. 당시 이현영이 두 골을 넣는 맹활약을 펼쳤고, 지소연도 1도움을 올렸지만 미국을 이기지 못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 최고의 스타로 떠오른 지소연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스위스와 첫 경기에서 대회 첫 해트트릭을 기록한 지소연은 가나와 2차전에서도 두 골을 몰아넣으며 한국 선수 중 남녀를 통틀어 FIFA 대회 첫 득점왕 탄생까지 부풀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 한국 여자축구 사상 처음으로 대회 금메달과 함께 대회 최우수선수로 뽑히는 감격을 맛본 지소연의 가장 큰 목표는 '미국 진출'이다. 이미 이번 대회에서 각국 관계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지소연은 미국을 상대로 직접 자신의 참모습을 알릴 좋은 기회다. /연합뉴스

차기 축구대표팀 사령탑
경남FC 조광래 감독 확정

프로축구 경남FC 조광래(56) 감독이 차기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조광래 감독은 "대한축구협회가 대표팀 감독으로 내정했다고 연락해왔다"고 20일 밝혔다.

조 감독은 "21일 기술위원회가 끝나면 곧바로 차기 감독으로 발표한다고 하더라"면서 사실상 대표팀 감독으로 내정됐음을 인정했다. 조 감독은 "대표팀 지도자는 누구에게나 영광스러운 자리다"며 "K-리그와 대표팀이 모두 생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현재 경남과 계약이 남아있는 만큼 원만한 해결점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팀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프로팀을 이끌어왔다는 조 감독은 "대표팀을 맡는 데 있어서 전혀 두려움은 없다. 좋은 지도자가 되려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다. 국민에게 즐거움을 주는 대표팀을 만드는 게 목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나이지리아와 평가전(8월 11일)을 앞두고 새로운 선수를 뽑을 수 없고, 유럽과 선수들도 호출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기존 대표급 선수들을 활용해서 경기를 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감독은 이어 "다만 격정스러운 것



은 경남FC 서포터스다. 대표팀 사령탑으로 결정됐다는 통보가 오면 경남FC의 차기 감독이 결정될 때까지 대표팀과 프로팀을 겸임할 수 있도록 축구협회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도 이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970~80년대 '컴퓨터 링커'라는 별명으로 대표팀의 미드필더로 활약했던 조 감독은 2000년 안양 LG(현 FC서울)의 지휘봉을 잡고 정구리그 우승을 이끌었다. 팀 조직력 완성과 유망주 발굴에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 조 감독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K-리그에서 1~3년 차 선수들로 구성된 경남을 이끌며 '경남 돌풍'을 일으켰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올스타전에 1억 흥린준

24일 대구서 '별들의 잔치'... 승리팀에 3000만원 상금

프로야구 '별들의 잔치' 올스타전에 1억원 짜리 흥린준이 등장한다.

오는 24일 대구구장에서 열리는 2010프로야구 올스타전에서 풍성한 상금 잔치가 벌어진다.

2010프로야구 공식음료 협찬사 한국야구 르트는 구장 우측에 500인치 대형스크린과 함께 '산타페 일러스트 흥린준'을 설치한다. 이 흥린준(비거리 134m)을 맞힌 타자에게는 올스타전 사상 최고의 금액인 1억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상금의 50%는 야구 발전기금으로 기부된다. 또 흥린을 친 선수들에게는 3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올스타전 참가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한 시상계획도 발표했다. 뜨거운 프로야구의 인기 만큼 상금 규모와 시상품도 사상 최대다.

기자단 투표에 의해 선정되는 '별종의 별' 미스터 올스타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기아자동차 K5이 부상으로 수여된다. 승리감독상, 우수투수상, 우수타자상 수상자에게는 지난해보다 100만원 더해진 상금 300만원과 트로피가 주어진다.

최다 탈삼진상 수상자는 지난해보다 1백만원 증액된 3백만원의 상금과 갤럭시 S 휴대폰을 받는다.

전직 프로야구 사장들의 모임인 선구회에서 수여하는 '선구회상'에는 상금 200만원과 트로피가 준비됐다. 새로 신설된 '우수수비상' 수상자에게는 200만원 상당의 한우세트가 주어진다.

올스타전 승리팀에게는 30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승리팀에게는 지난해에 비해

2000만원 증액된 금액으로 1500만원 상당의 외식 상품권과 900만원 상당의 한우세트도 수여된다. 승리팀 소속 베스트 10 선수는 500만원 상당의 스포츠용품 상품권도 받는다.

올스타전 백미 중의 백미 흥린레이스 우승자와 준우승자를 위해서 각각 상금 300만원과 100만원이 준비됐다. 흥린레이스 최다 비거리 선수에게도 DSLR카메라가 증정된다.

올스타전 베스트 10 인기투표 최다득표자인 롯데 흥선훈은 '마구마구 최고인기상'(상금 2백만원)을 받는다.

한편 이번 올스타전은 13년만에 대구에서 열리며 KIA 타이거즈에서는 팬투표를 통해 베스트 10에 선정된 내야수 안치홍·최희섭, 외야수 이용규와 함께 감독추천을 받은 손영민·양현종(이상 투수), 포수 김상훈 등 6명이 초대장을 받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깜짝 트레이드 황재균 올스타전 어디서 뛰나

넥센소속 팬투표 웨스턴리그 3루수 부문 1위 선정
롯데이적으로 이스턴리그행... KBO 출전팀 결정

프로야구의 깜짝 트레이드가 화제다. 20일 넥센 히어로즈의 내야수 황재균(23)과 롯데 내야수 김민성(22)·투수 김수화(24)의 1대 2 트레이드가 단행됐다.

넥센은 올 시즌을 앞두고 마운드 기동좌완 이현승·장원삼, 핵심 외야수 이택근을 각각 두산, 삼성 그리고 두산으로 팔아 넘겼다. 여기에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성장하고 있는 황재균까지 트레이드 명

단에 올리면서 야구팬들에게 이날 소식은 큰 화제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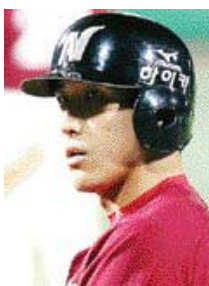
황재균의 트레이드는 무등경기장 덕아웃도 뜨겁게 달궜다. 트레이드 자체에 대한 관심도 있었지만 코앞에 닥친 '올스타전' 때문이었다.

황재균은 2010 올스타전 팬투표에서 웨스턴리그 3루수 부문 1위를 차지해 베스트 10에 선정됐다. 하지만 이번 트레이

드로 이스턴리그에 속해 있는 롯데로 팀을 옮기게 된다.

이스턴리그 3루수는 이대호가 이미 팬들의 선택을 받았다. 그렇다고 황재균이 넥센 옷을 입고 웨스턴리그 소속으로 올스타무대에 오를 수도 없는 처지다.

20일 조범현 감독은 삼성과의 흥경기에 앞서 올스타 출전 선수 명단까지 펼쳐 놓고 앉아 고민을 했다. 결국 문제는 KBO가 풀다. KBO는 트레이드에 관한 최종중심인 후 올스타전 출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



다이빙 연기

멕시코의 파올라 에스피노자가 20일(한국시간) 푸에르토 리코 미아게스에서 열린 중앙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게임 여자 1m 스프링보드에서 다이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엄지부상' 추신수 마이너리그서 안타

오른손 엄지를 다쳤던 추신수(28·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17일 만에 실전 경기에 나서 타격 감각을 조율했다.

추신수는 20일(한국시간) 클리블랜드 산하 마이너리그 더블A 에이크런 에어로스 소

속으로 알투나 컵과 경기에 출장해 3타수 1안타를 때렸다.

추신수는 4번 타자로 선발 출장해서 3차례 타석을 소화한 뒤 대타로 교체됐다. 수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자신의 포지션인 우익

수가 아닌 지명타자로 나섰다.

추신수는 지난 3일 오클랜드와 경기에서 다이빙 캐치를 하다가 엄지를 다쳤다. 19일 다친 뒤 처음으로 그라운드에서 투수가 던져 주는 공을 치면서 페이스를 끌어올렸으며 24일 탬파베이와 경기부터 팀에 복귀할 예정이다.

최근 2번 타자로 뛴 추신수는 복귀 후 3번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